
 인천광역시		보 도 자 료		 시민이 행복 한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	
		배포일자	2023년 9월 21일(목) 총 2매		
담당 부서	녹지정책과	담당자	• 산림휴양팀장 박은지 ☎440-3676 • 담당자 김은주 ☎440-3677		
사진(이미지)	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
보 도 시 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인천시, 휴양림·수목원 등 산림 휴양공간 확대 방안 찾는다
-시, 내년 5월까지 산림보전 및 효율적 개발방안 기본구상 용역 추진 -
- 보전과 개발의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및 숲길산림휴양시설 등 확대 조성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가 기후 위기 시대에 해법을 숲에서 찾고자 내년 5월까지 ‘산림보전 및 효율적 개발방안 기본구상 용역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.

이번 용역은 여의도 면적(2.9km²)의 약 134개에 달하는 3만9천ha의 인천시 전역의 산림을 대상으로, 2024년 5월 마무리 예정이다.

기본구상에는 ‘일상 속 나만의 숲(I-forest) 조성’을 미래상으로 △산림 개발 수요에 맞춘 보전·개발의 효율적 관리 방안 △숲길 조성 확대 및 관리 실천 방안 △산림휴양시설 확대 조성 △국내외 사례분석 및 다양한 주민참여방안으로 민·관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산림을 만들어가기 위한 실천 전략이 담길 예정이다.

특히, 자연·인문적 여건을 반영해 보전지역과 개발 가능 지역을 분석하고,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해 산림보전에 대한 심

도 있는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.

또한,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등산 인구를 포함해 보행 약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무장애 둘레길 확대 조성을 하고, 지형 및 입목 상태 등을 고려한 숲 정원, 자연휴양림, 수목원 등 산림휴양시설의 최적지를 찾을 예정이다.

시는 이번 용역에서 시민, 전문가, 환경단체 등 설문조사 등을 통해 산림 여가 활동 현황, 이용행태 등을 고려해 산림 보전과 개발의 발전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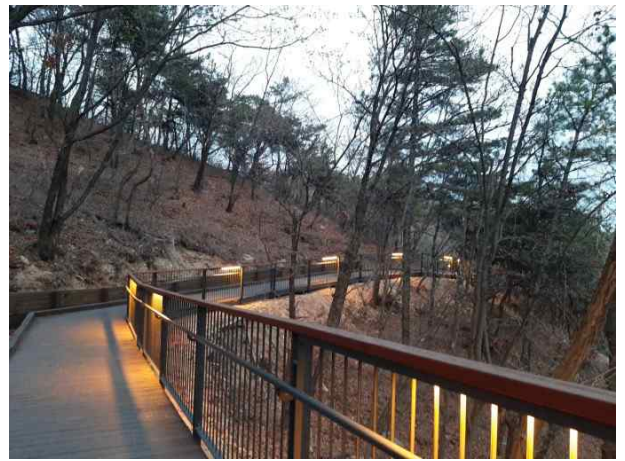
최도수 인천시 도시균형국장은 “이번 용역으로 기후변화 등 미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, 산림생태계 보전과 이용이 조화롭게 지속될 수 있도록 기본방향 설정에 최선을 다하겠다” 고 말했다.

붙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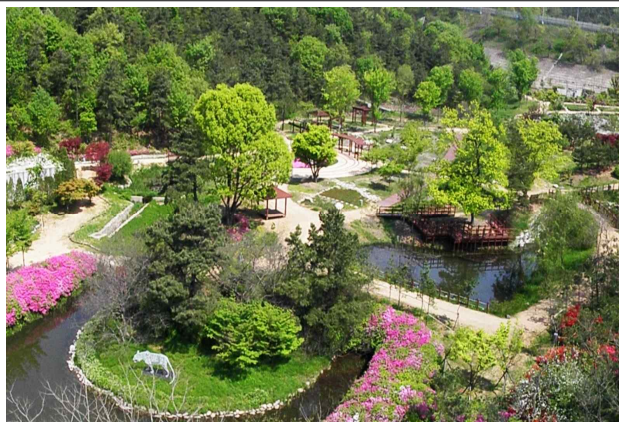
사례사진



만수산 정상



만수산 무장애 둘레길



인천수목원



강화군 화개정원



인천유아숲체험원



인천 치유의숲

산림휴양시설 현황도

